코로나19 사태 속 각양각색 백중기도

日사찰들, 다양한 시도 '눈길'
감염우려에 가정법회 취소도
전통의례시 예방법지침 공개
마스크 착용·차 대접도 생략
원격으로 천도재하는 사찰도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일본. 최근엔 일일 확진자 수가 1천600여명을 넘는 등 '깜깜이 감염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최대의 명절이자 불교행사인 백중이 코앞으로 다가와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편 이에 대비한 일본 불교계의 다양한 대책도 속속 등장 중이다. 지난 8월 4일, 일본의 '교토신문' '엑사이트 재팬' '이자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 19에 대비한 일본의 백중 풍경을 전달했다.

음력에 맞추어 법회를 봉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양력에 맞추어 봉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 7월 15일에 봉행하던 백중은 현대 일본에서 양력에 부합하는 8월 15일에 봉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각 사찰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합동으로 천도재를 지내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 불단이 모셔져 있는 관계로 스님이 신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불경을 독송하는 '다나교(棚經)'이라는 풍습이 있다. 또 사찰에서는 무주고혼들을 위하여 '세가키(施餓鬼)'라는 의례를 봉행한다. 특히 다나교는 사찰이 재적 신도를 방문하고 사찰과 신도 간의 관계를 재확인 하는 중요한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의례들이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예년 같으면 큰댁에 온 가족이 모여 스님을 청해 다나교를 봉행했지만 올해는 어찌해야하나 고민"이라며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스님께 현관에서 알코올 소독 등을 요구하는 것은 실례일지 모르겠다"며 가정 방역대책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 불교계는 각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예비지침을 전파, 신도 가정 등에도 공지하고 있다. 교토시내 정토종 사찰 등에서는 "평소 같으면 차가운 차와 물수건 등을 제공 받지만 올해는 정중히 거절하라"는 지침과 함께 "비말확산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방문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천도재를 중계하는 모습.
사진출처=이자뉴스

염불과 독경도 최대한 작은 소리로 진행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공지됐다.

그러나 종파를 불문하고 올해 백중기간 중 스님의 방문을 거절하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스님은 "백중기간을 맞아 귀성한 가족들이 모인 곳에 어딜 다녀온 지 알 수 없는 스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줄로 안다"며 거절의 이유가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사찰은 종래의 세가키 법요를 확대, 합동천도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사찰에 가족묘를 두는 일본의 특성상 다나교 이후에 각 가정이 성묘를 하는 것에서 착안했다. 교토에 소재한 호린지(法林寺)의 주지 시가하라 마사후미 스님은 "백중의 달인 8월에 모든 조상들과 무주고혼들까지 함께 위안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합동 천도재를 진행한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온라인이나 원격화상을 통해 천도재와 가정방문을 진행하는 사찰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온라인 법회와 천도재 등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 4월경부터 도입돼 신도들의 참여가 원활하다는 이유다.

온라인 장례와 법회를 지원하는 회사인 '라이프 앤딩 테크놀로지'는 "오는 16일, 코로나 19로 귀성이 힘든 이들 등, 여러 사안으로 곤란한 이들을 위해 종파를 불문한 합동 천도재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에겐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해당일 시간에 맞춰 접속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태국불교, 출재가 상생으로 고난 극복

스님들이 재가자에게 공양도
사찰 중심 경제난 극복 앞서

코로나19로 경제난에 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태국의 사찰들이 나섰다. 일반적으로 보시와 공양을 받는 출가승단이 재가자들에게 역으로 공양을 베푼 것이다. 지난 8월 5일 '컨버세이션' '텔레그래프 타이' 등 현지 언론들은 역(逆)공양을 하는 태국 사찰의 새로운 모습들을 특별 보도했다.

태국 불교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행과 신행활동은 출재가간에 공유하는 탁발과 보시이다. 매일 아침 발우를 들고 일렬로 선 스님들에게 재가자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공양 올리는 것은 남방 불교의 흔한 이미지중 하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태국의 출가승단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공양을 베풀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코로나19는 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태국 언론들은 인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8백만 명 이상의 태국인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무기한 휴직 등으로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 사찰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태국 아유타야 주 한 마을에서 스님으로부터 음식을 받기 위해 그릇을 내미는 할머니.
사진출처 = 더스탠다드

나섰다.

지난 6월부터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스님들은 전국의 스님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음식을 베풀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지역 주민의 기부를 독려하는 공고를 올렸으며, 각 사찰들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모금함을 설치해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스님들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해 탁발에서 받은 공양물들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태국 북부 피차이 주에 있는 왓 타 루앙(Wat Tha Luang) 사원은 주지스님 지휘 하에 매일 점심에 무료 도시락을 제공했다. 사원측은 "봉쇄기간 동안 1인당 최소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점심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며, 모두 사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태국최초의 비구니인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이 거주하는 왓 송담마칼랴니(Wat Songdhamma kalyani) 사원 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매일 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찰측은 주민들을 위해 인스턴트라면 꾸러미와 쌀, 과자와 야채 같은 부식이 든 봉투를 하나씩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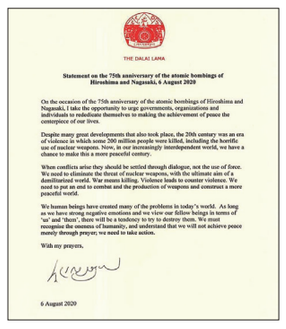
태국 불교계의 보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쓰나미가 태국 남부를 강타했을 때, 사찰들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처로 사용되었고, 2011년 방콕 대홍수에는 사찰이 급식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최근 태국언론에선 개인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고급 쇼핑몰을 이용하는 등 부패한 사찰과 승단이 대대적으로 노출되어 불교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불교계의 보시행을 통해 불교계와 출가승단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日 원폭투하 평화 메시지

공식사무국, 8월 9일 발표
"핵무기의 위협 근절해야"


THE DALAI LAMA

Statement 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6 August 2020

On the occasion of the 75th anniversar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I take the opportunity to urge government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rededicate themselves to making the achievement of peace the centerpiece of our lives.

Despite many great developments that also took place, the 20th century was an era of violence in which some 200 million people were killed, including the horrific use of nuclear weapons. Now, in our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we have a chance to make this a more peaceful century.

When conflicts arise they should be settled through dialogue, not the use of force. We need to eliminate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with the ultimate aim of a demilitarized world. War means killing. Violence leads to counter violence. We need to put an end to combat and the production of weapons and construct a more peaceful world.

We human beings have created many of the problems in today's world. As long as we have strong negative emotions and we view our fellow beings in terms of 'us' and 'them', there will be a tendency to try to destroy them. We must recognize the oneness of humanity, and understand that we will not achieve peace merely through prayer; we need to take action.

With my prayers,

6 August 2020

달라이라마가 일본 원폭투하 75주년에 맞춰 발표한 평화메시지.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을 맞이해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난 8월 6일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달라이라마가 서명한 공식 메시지를 공개했다.

달라이라마는 75년 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에 맞추어,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피폭 75주년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약 14여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세계 2차 대전의 종전을 이끌어 냈지만 전시 원자탄 사용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일으켜 탈핵과 반전 운동의 시초가 되기도 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법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모임이 열려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원폭 기념공원을 방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근절해야 하며, 그것은 세계의 비무장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평화를 위한 인류 모두의 노력을 권고했다. 달라이라마는 "20세기는 인류가 가장 큰 발전을 이룬 시대인 동시에 핵무기의 공포를 수반한 폭력의 시대이기도 했다"며 원자폭탄이 사용되었던 전쟁시기와 이어졌던 냉전시기를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에 대해서는 "세계가 더욱 상호간에 의존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평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의 연기설에 근간해 희망적인 미래를 낙관했다.

달라이라마는 "대립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힘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력은 더 큰 보복과 폭력을 불러온다"고 말하며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별로 서로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류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평화는 단지 기도만으로 실천될 수 없기에 행동으로 나서야한다"며 평화를 위한 실천을 주문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겔룩파 최고학위 '게쎄 하람빠' 수여식

8월 10일 라싸 조캉사원서
티베트 불교 4대 종단 하나


시험에 응시한 스님들의 마지막 토론 시험.
사진출처 = 차이나 데일리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Gelug)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 지난 8월 10일 중국 '신화통신'은 12분의 스님들이 이 게쎄 하람빠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어로 '선지식'을 뜻하는 게쎄 학위는 티베트 불교에서 교학과 수행을 모두 갖춘 스님에게 수여되는 법계다. 이중 '하람빠(Lhalamapa)'는 불교학 박사에 해당하는 학위로,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 학위다.

지난 7월 28일,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소재한 조캉사원에서 게쎄 하람빠 시험에 응시한 스님들의 마지막 토론 시험이 진행됐다.

하람빠 시험은 전통적으로 라싸의 3대 사찰인 간댄, 드레풍, 쎄라사원에서 번갈아 치러지며, 마지막 토론시험만은 조캉사원에서 이뤄진다.

현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역시 인도로 망명하기 직전 전통적인 시험을 거쳐 게쎄 하람빠를 취득한 바 있다. 역대 달라이라마 중 게쎄 하람빠 학위를 받은 이는 현 달라이라마를 포함 총 3인 뿐으로, 그 시험이 매우 엄격하고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새로 게쎄 하람빠를 취득한 12명의 스님들은 이후 선배 하람빠 스님들의 합동 토론회, 단체 안거 등의 연수를 마치고 각자의 본사에서 교수, 혹은 주요 소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了義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 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不許.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